

관계성 측면에서 본 전통건축 특성요소 분석

-울산시의 조선중기 이후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이 주 희*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김 선 중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실제로 건축이 반영해야 할 삶의 방식과 생활패턴, 우리 민족의 사상 등이 간과되고 있다. 전통은 결핍되어 있는 현대건축의 생활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전통건축은 시대성, 위계성, 관계성,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관계 속에서 전통건축의 특성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관계성이란, 하나의 대상이 다른 특성 혹은 불특정 대상에 대해 서로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특성, 즉 관계를 지닌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울산시의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주거건축으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관계성 측면에서의 전통건축 특성을 분류하여 이에 따라 얻어진 틀을 울산시에 위치한 주거건축 6곳인 사일 서씨고가, 약사 신씨고가, 송정 하계공 종택, 만정헌, 석천리 이씨고가, 박상진의사 생가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 본 관계성 측면에서 전통건축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건축, 자연과 건축, 건축과 건축, 시간과 공간의 여덟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는 궤적의 미학, 뜬의 미학, 바라봄의 미학, 빈자의 미학, 상징성, 신성미학, 역동성, 위계성, 유기성, 작용성, 중첩, 중용의 미학, 착시성, 투명성, 틈, 폐쇄성, 해학성의 16가지 특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분석의 틀이 되었다.

관계성 측면에서 본 울산시에 위치한 주거건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일 서씨고가는 인간과 자연, 자연과 건축의 관계 속에서 바라봄의 미학을 대표하는 사례이며, 이는 공간의 중첩 및 관입, 모서리 열림 등으로 표현되었다. 약사 신씨고가는 인간과 인간, 시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위계성과 역동성을 대표하는 사례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단, 지붕의 중첩, 담의 높이조절로 표현되었다. 송정 하계공 종택과 만정헌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건축의 관계 속에서 바라봄의 미학이 배치, 진입, 화계로 표현되었고, 석천리 이씨고가는 인간과 자연, 자연과 건축, 시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유기성과 작용성, 뜬의 미학이 나타났는데, 이는 분산식 배치와 집합성, 대청, 마당, 중정구조에서 표현되었다. 박상진의사 생가는 자연과 건축사이의 위계성 속에서 기단, 기둥에서 그 특성이 표현되었다.

분석결과 울산시 조사대상 전통 주거건축은 인간과 건축, 자연과 건축의 관계가 강조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분석의 틀을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울산 건축의 전통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